

멈췄던 3년, 그리고 나

세월호 인양 취재기

MBN

전범수 기자



동거차도에서 바라본 세월호 인양 준비하는 바다 풍경 및 노란 리본

“헉헉……. 아 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내 몸 밑바닥에 있는 힘까지 쥐어짜내며 앞사람의 발만 보며 따라간다. “똑바로 안 걷나, 그러다 넘어진다. 똑바로 발맞춰 걸어”, “13번 훈련병, 정신 차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조교가 소리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나라를 지킬 수…….’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 높은 산을 군장을 메고 넘었다.

그랬다. 10여 년 전에 나는 그랬다. 지금 내가 오르려는 산은 내가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다. 침몰한 세월호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섬, 그 섬에 있는 산을 오른다. 속으로 되뇌었다. ‘힘들다……. 힘들다……. 오르기가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피하고 싶었다. 산을 오르는 건 같지만 희망찬 기운을 뿜어낸 수년 전과는 다른 마음에 힘들었다. 하지만 그 길을 올랐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아픔이다. 수많은 어린 꽃잎을 잃었다. 그 아픔의 결정체인 세월호를 3년이 지나 인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갑작스러웠다. 동거차도로 들어가는 배는 하루에 하나였고 그 배를 타기 위해 수많은 언론이 팽목항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렸다. 3년 전에도 동거차도를 찾았던 나였기에 익숙한 풍경일 수 있지만, 대중이 세월호를 잊어 지내듯 나 또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다. 3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배에 탑승하고 긴 뱃길을 지나 동거차도로 들어갔다. 동거차도는 그대로였다. 세월호가 보이는 해역을 올라가는 산길 또한 그대로였다.

올라가는 길목에 몇 명이 서 있었다. 그중에 한 명이 막아섰다. “못 올라가요, 안 됩니다.” 뭐지 이 사람은? “왜요”라고 물었다. 그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3년 동안 언론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어요. 뭐 이제 인양한다고 하니깐 구경거리나 생긴 거요?”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분은 단원고 학부모였다.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다 변을 당한 그 어린 꽃잎의 아버지였다. 3년 동안 나는 세월호를 잊고 살았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해서일 것이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우두



팽목항에서 동거차도로 들어가는 배안 모습

커니 그분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3년 동안 이분들은 2014년 4월 16일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분의 말은 단호했고 한동안 이어졌다. 아마도 세상에 쏟 아내는 말일 것이다. 꽤 긴 시간 이후에 제한된 인원만 산을 오르는 것을 허락하였다.

산길 중간중간 노란 리본들이 보였다. 올라가는 길을 표시해두려고 유가족들이 붙여놓은 것으로 보였다. 숨이 턱턱 차오르는 가파른 길을 올라 정상에 다다랐을 때 내 앞에 있는 바다보다 그 옆 움막 3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움막에서 생활하며 세월호 해역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바람이 불고 무더위와 강추위가 와도 그곳을 지키고 계셨으리라……. 이분들이 긴 시간 이곳을 지키는 동안 세상은 흘러갔다. 그 3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인양하는 시기가 되자 언론들이 이곳을 다시 찾았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에서 온 사람들이 불편하고 못마땅해 보였을 것이다. 삼각대를 세우려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날카로운 반응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반응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있는 것인가…….’ 조심히 움막을 지나쳐 앞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았다.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이 보였다. 멋진 바다 풍경이 보였다. 역설적으로 그 풍경이 아름다웠다. 대한민국의 슬픔이 모여 있는 바다였지만 고귀해 보였다.

3년 전 부표가 보였던 자리에는 인양하기 위한 바지선 몇 대가 보였다. 그리고 주변에는 해경 배와 작업선들이 보였다. 망원렌즈로 렌즈를 교체한 후 최대한 줌인을 해 인양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뷰파인더를 통해 봤다. 한참 동안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머릿속엔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나’라는 생각만 계속 떠올랐다.

영상기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이다. 관찰자는 관찰만 하는 방관자인가. 3년 전에 왔다가 세월호에 대해 무관심하

게 세월을 보낸 후 다시 관찰자로 돌아온 것이 내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자괴감이 끓어올랐다. 그 순간 세월호 유가족 중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꼭 이번에 인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관심……’ 이라. 미디어는 대중에게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 영상기자는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영상에 담아서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한다. 단순한 명제이다.

보도사진 작가 그룹인 메그넘 포토스를 설립한 ‘로버트 카파’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전쟁에 참전해 보도사진을 남겼다. 사진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을 알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지금 이 순간을 알차게 담자.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라고 그 순간 되뇌었다. 세월호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 언론이다. 대한민국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마주해야 치유가 된다.

3년의 무관심에 대해 속죄하듯이 몇 번이고 며칠이고 계속 올라갔다. 인양 작업을 하는 순간순간을 담았다. 심해에 가

라앉아 있는 세월호는 그 자리에서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끌어올리는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파도가 약한 소조기 때 세월호를 바다 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졌다. 세월호가 조금씩 위로 끌어올려질수록 대중의 관심 또한 커졌다.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산 정상으로 오르며 인양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오르고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접하고 오른 새벽 산행길,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지만,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려 산 정상에 도착했다. 산 정상에서 본 바다 풍경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망원렌즈를 통해 최대한 줌인을 해 인양 작업 현장을 세심히 봤다. ‘세... 세월호다.’ 3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보였다. 먹먹했다. “이렇게 며칠 만에 할걸 3년 걸렸어..... 3년.” 세월호 유가족분의 말이 들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육지까지 올려야 되고 미수습된 애들도 찾아야 해.”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 많은 작업이 남은 상태였다. 세월호를 더 끌어올려 반잠수정에 옮겨야 했고 그 이후에 목포 신항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세월호가 반잠수정에 옮겨지는 과정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다. 반잠수정에 옮겨지는 그 순간까지 내 카메라에 담았다.

동거차도에서 1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른 팀과 교대해 나가게 될 아침, 산 정상에 다시금 올랐다. 반잠수정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까지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구나!’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소나기가 갑

세월호 인양 취재 출장 장비 및 물품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인양 모습을 바라보는 취재진

자기 쏟아져 내렸다. 비에 흠뻑 젖은 우리를 유가족분들이 움막 안으로 불렀다. 누룽지 한 그릇 하라며 주셨다. 그 한 숟가락에 내 몸이 따뜻해졌다. 처음 동거차도에 도착했을 때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어린 꽃잎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며 “따뜻하죠?”라고 물으셨다. “네,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한 그릇을 말끔히 비웠다. 누룽지 하나에 내 몸이 따뜻해지듯 1주일간 대한민국 국민도 세월호가 심해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움으로 가득 찼으리라.....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곳, 아픔을 피

하고 싶었던 나와 그곳이 만나는 순간 나에게 먹먹함이 찾아왔다. 3년간 잊어왔던 바다 한복판 깊숙한 곳에 숨겨져온 진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던 그 진실, 침몰한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슬픔이 올라오는 순간,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았다. 그게 영상기자의 운명이다. 10년여 전에 이 나라를 지켜야 했던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이 나라를 치유하게 했으리라 믿는다. 📺